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9.27)

1.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 관련

□ [일본 정부 동향]

- 아베 총리는 “군사전용 위험이 있는 민감 품목 및 기술과 관련, 실효성 있는 수출관리를 하는 것은 국제수출관리 레짐 하에서 국제사회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다. WTO 협정을 포함한 자유무역 체제와도 완전히 정합적이며, 주변국을 시작으로 타 국가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발언¹⁾

2. 한일 외무장관 회담 관련

□ [동향]²⁾

-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모테기(茂木) 신임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회담을 실시
- 모테기 외무장관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시정을 재차 요구
- 한편 모테기 장관은 징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자간 의사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싶다고 하였으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 및 북한 문제 관련하여 연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에는 한국 정부와 의견을 일치(NHK 보도)
- 또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재판에서 원고측이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 현금화하려는 절차를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현금화되면 사태는 더 심각해진다” 라고 발언

3. 불화수소, 맥주 수출 관련

1) 「安倍首相会見の要旨、日韓関係、輸出管理は国の責任、憲法改正、期待に応える議論を。」 『日本経済新聞』 (2019. 9. 27).

2) 「日韓外相初会談 従来立場主張にとどまる 米ニューヨーク」 『NHK NEWS WEBS』 (2019. 9. 27).

□ [동향]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8월 무역통계에 의하면, 불화수소(에칭가스)의 대한민국 수출이 제로(수량, 금액기준)였던 것으로 드러남.³⁾
- o 2018년 8월 불화수소의 대한민국 수출은 3,378톤(금액기준 7억 4,000만엔)이었음.
- 한편 닛케이는 7월 불화수소의 대한민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약 82% 감소하였는데 8월에는 제로였다는 점을 들어,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강화의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⁴⁾
- 또한 8월 일본산 맥주의 대한민국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약 92% 감소(5,009억엔)하였으며, 청주 수출액도 34% 감소

4. 방위백서에서 한국의 중요도 순위 하락 관련

□ [일본 정부 동향]⁵⁾

- 고노(河野) 방위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하면서, 동맹국인 미국 외 안전보장협력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장(chapter)에서 한국의 기재 순서를 2018년 판의 2번째에서 4번째로 변경했다고 발표
- o 방위백서 ‘안전보장협력’ 챕터에서는 호주, 인도, ASEAN 다음으로 한국을 소개
- 방위백서에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관제 레이더 조준사격,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방위당국자 간에도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이 한일 방위협력,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

3) 「韓国向けフッ化水素輸出ゼロに 輸出管理厳格化が影響か」 『NHK NEWS WEB』 (2019. 9. 27).

4) 「8月貿易統計、韓国向けフッ化水素、管理厳格化で輸出ゼロ。」 『日本経済新聞』 (2019. 9. 27).

5) 「韓国の重要度引き下げ、防衛白書、関係悪化が影響。」 『日本経済新聞』 (2019. 9. 27).

5. 트럼프 대통령의 한일관계 언급 관련

□ [일본 언론 동향]⁶⁾

- 9월 2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이와 관련하여 일본 언론은 그 배경으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미국의 위기감이 있는 것이라고 논평
- 한편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미 의회의 공청회에서 “미국은 향후에도 (한일) 양국이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계속 촉구할 것” 이라고 강조

6) 「日韓関係、米も危機感 トランプ氏、首脳会談で言及」 『朝日新聞』(2019. 9. 27).